

군산, 에너지 자립도시 구현

새만금 산단 내 재생에너지 유치 관련기업 지원 사업비 53억원 들여 신재생에너지 보급도 추진

군산시는 시민 모두가 참여하고 누리는 에너지 자립도시 구현을 위해 지역주민과 상생하고 이익이 환원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사업과 융복합지원 사업을 통한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서민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태양광,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 사업에 시민투자를 기반으로 한 시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추진을 위해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를 금년도 상반기 중 설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새만금육상태양광 2구역 발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발전사를 우선 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으로 3월 중에 사업 제안서 접수를 통해서 사업구조에 적합한 발전사를 심

사·선정 할 계획이고, 발전사 선정 이후에는 EPC 선정 등 본 사업추진을 위한 각종 인허가·설시절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에는 새만금 산업단지 내 재생에너지 관련 투자협약과 유치를 확정 지은 관련기업과 연구기관의 본격적인 착공이 이루어지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작년보다 더 많은 기업과 연구기관의 유치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을 통해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에 더욱더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한, 작년 10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및 지역지원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확보한 국비 26억원을 포함, 총사업비 53억원을 투자해 신재

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경로당 26개소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워터 조성사업 추진 및 신재생에너지 국제박람회(5.14.~5.16/군산GSCO)를 개최할 예정이다.

서민층 에너지 사각지대 해소 및 에너지 복지실현을 위해 취약계층(저소득층·복지시설) LED 조명기기 교체와 가스시설 개선 및 가스안전장치 보급, 난방연료 운송 지원,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공급관 설치 추진한다.

군산시 관계자는 "세계적인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및 정부의 3020 정책에 부응하는 다양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 추진으로 지역주민과 상생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에너지자립 도시 조성을 위한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국가산업단지 내 근로자 복지환경을 개선하고자 문화, 복지 편의기능 등이 집적된 복합센터 조성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군산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추진

총사업비 98억원 확보

군산국가산업단지 내 근로자 복지환경을 개선하고자 문화, 복지 편의기능 등이 집적된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98억원(국비 33억원, 도비 10억원, 시비 55억원)으로 지난해 43억원(국비 33억원, 도비 10억원)을 확보했으며, 20년도 본예산에 시비 20억원을 반영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군산복합문화센터는 오식도동 요곡공원 내 부지 1,790㎡에 연면적 3,260㎡,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되며 산단민원센터, 기업지원센터, 보건지소, 작은도서관 등을 집적해 원스

톱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워라밸 시대에 부응해 체력단련장, 다목적극장, 옥외정원 등 입주기업 및 지역주민이 생활체육과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 제공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

금년도는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기타 행정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며, 하반기 공사착공을 목표로 오는 2021년 공사를 준공 할 계획이다.

김임준 군산시장은 "군산시내와 접 근성(25km)이 떨어진 산업단지내 문화·체육·편의시설 부재로 청·장년 및 기술인력 근무 기피 심각함에 따라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통해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 및 지역주민들의 더 나은 정주여건을 제공하고 청·장년이 일하고 싶은 산업단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시 "노후경유차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코로나19 확산방지 위한 휴대전화 문자전송·우편발송 접수방법 신설

익산시는 맑고 깨끗한 공기 환경친화도시 조성 일환으로 오는 3월9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노후경유차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은 약 2,100대분 33억7천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연식이 오래된 차량순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이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소유자 15,334명에게 지원사업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여 지원사업 신청 방법을 휴대폰 문자전송, 우편접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방 접수 3가지 중 1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할 것을 안내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을 예방을 위해 대인 접촉을 최소화한 문자전송과 우편접수를 권장한다고 밝혔다.

휴대폰 문자 접수 방법은 발송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서와 신분증을 휴대폰으로 촬영 후 동지역은 010-4825-4422로, 먼지역은 010-4826-4422 번호로 문자 전송하면 접수가 완료된다.

문자전송이 어려운 경우에는 작성된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 "익산시 인북로32길 1 익산시청 환경정책과 조기폐차 담당자"로 우편 발

송하면 되나 수신 확인을 위해 반드시 등기로 접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앞선 방법으로도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내방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조건은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상 연속 익산시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으로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되어야 하며, 정상 운행 불가 판정 차량이나 저감장치 부착 차량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달라진 점은 조기폐차 후 중고 경유차를 재매입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폐차시 차량 기준가액의 70%를 지급하고 폐차이후 경유차를 제외한 LPG나 가솔린을 연료로 하는 차량을 구입하여 신차 등록시 나머지 30%를 추가 지급한다.

아울러, 시는 또다른 노후 경유차 지원사업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지원사업도 추진하는데 약 503대분 23억여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3월9일부터 20일까지 접수하고 제작사별 선착순으로 보조금을 지원한다.

신청 방법은 시에서 선정한 저감장치 제작사 6개사 (크린스 1577-

9014, 에이치케이엔앤에스 070-4267-2729, 이앤디 1644-2402, 세라컴 02-744-1777, 에코닉스 1666-3243, 일진복합소재 1588-7558)에 전화로 신청 접수하면 제작사에서 시에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 차량이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사업과 저감장치 부착사업에 중복 신청은 가능하지만 보조금 중복 지원은 불가하므로 저감장치 부착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조기폐차 선정자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노후경유차 지원사업"은 익산시 대기환경을 더 맑고 깨끗하게 만들어 환경친화도시 익산으로 거듭나기 위한 정책인 만큼, 많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직접 방문 접수를 피하고 되도록 휴대전화 문자전송과 우편접수를 이용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www.iksan.go.kr) 공고문을 참고하고 익산시청 환경정책과 859-5436, 5443, 5498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장양원 기자

www.jjmaeil.com

지역 소식통

익산, 지역아동센터 휴원 긴급돌봄 서비스 실시

익산시는 코로나19의 방지를 위한 지역아동센터의 휴원기간 중에도 가정 내 돌봄이 어려운 이용아동에게 긴급돌봄 기본서비스를 시행중이다.

휴원기간동안 아동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 확보를 위해 보호자 및 이용 아동의 동의를 얻어 아동생활 점검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지역아동센터와의 1일 보고체계를 구축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또한, 자기돌봄 아동의 급식 공백을 우려하여 부식 물품 제공으로 아동의 결식우려 및 영양결핍을 예방하고 건강한 생활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정현을 시장은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에, 지역아동센터의 휴원 기간 중에도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돌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장양원 기자

익산시 - 종교단체 협력 코로나19 전방위 차단

익산시가 종교단체와 공동 대응으로 코로나19 확산차단을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감염병 예방에 취약한 종교시설에 81개소에 방역을 완료하고, 종교계 자체적으로도 매일 소독을 실시하도록 했으며, 매주 수요일이 일제 소독의 날로 정해짐에 따라 관내 모든 종교 시설이 일제히 소독을 실시하여 코로나 19의 지역사회 유입을 완벽 차단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시는 감염증의 급속한 확산의 중대한 고비가 되는 금주 중 감염증 대규모 확산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종교계에도 지속적으로 종교 행사 자체를 촉구해왔고, 중소형 교회 54개소도 오는 주일 대 예배를 중지하기로 했다.

한편 모현동 소재 기쁨의 교회는 자체 보유한 마스크 700개를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는 미담을 전하기도 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